‘아버지의 힘’ 연기대상 빛냈다

2017 연기대상 시상식

시대의 아버지상 다양하게 그려 인기
KBS 김영철·천호진, MBC 김상중
SBS 지성·이보영 부부 대상·최우수

‘아버지가 이상해’ 김영철

‘황금빛 내 인생’ 천호진

‘역적 : 백성을 훔친…’ 김상중

‘피고인’ 지성

배우 지성(본명 곽태근·40)이 많은 이의 예측대로 올해 SBS 연기대상을 받았다.

지성은 31일 서울 상암동 SBS 프리즘타워에서 열린 ‘2017 SBS 연기대상’에서 ‘피고인’으로 아내 이보영 등 다른 후보들을 넘고 대상을 거머쥐었다.

지성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방송한 드라마 ‘피고인’에서 딸과 아내를 죽인 누명을 쓰고 사형수가 된 검사 박정우를 연기해 시청률이 30%에 근접하는 데 주된 역할을 했다. 덕분에 올해 가장 유력한 대상 후보로 꼽혔다. 시상자 역시 뜸 들이지 않고 지성을 호명했다.

지성은 수상 소감에서 “딸 가진 아빠로서 드라마 내용이 너무 무서워서, 시청률이 잘 나올 때도 겉으로는 기쁘지만 속으로는 마냥 좋아할 수 없었다”면서도 “올해 초에 방송했는데 잊지 않고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제게는 마음의 대상이 따로 있다. ‘피고인’을 통해 만난 친구인 엄기준 씨다. 누구도 그런 악역을 연기하기 쉽지 않았을 것인데 함께하면서 많이 배웠고 존중한다”며 엄기준을 향해 “이 상은 네 거야”라고 했다.

지성은 또 “1999년 SBS에서 ‘카이스트’로 데뷔해 이 자리에 서 있다”며 “데뷔 초에는 주변에 민폐를 끼치는 배우였다. 19년간 위기 때 도움을 준 고마운 분들께,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늘 지극정성으로 보답하겠다”고 인사했다.

지성의 지상파 연기대상 수상은 2015년 ‘킬미, 힐미’로 MBC 연기대상을 받은 후 2년 만이다.

그는 이날 대상 수상 후 ‘귓속말’로 최우수 연기상 월화드라마 부문을 받은 아내 이보영과 나란히 서서 축하받았으며 “사랑하는 아내에게 감사하다. 늘 부족한 남편을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말한 뒤 아내의 뺨에 뽀뽀했다.

이보영 역시 이날 “지성 씨와 결혼한 이후 처음으로 같이 맞는 새해”라고 애정을 드러냈으며, 지성의 대상 수상 순간에는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최우수 연기상은 이보영 외에도 ‘언니는 살아있다’의 손창민과 장서희(일일·주말드라마), ‘당신이 잠든 사이에’의 이종석과 배수지(수목드라마), ‘조작’의 남궁민(월화드라마)에게 돌아갔다.

약 4시간 동안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뮤지컬 배우 박은태와 가수 인순이의 축하공연도 이어졌다.

여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했던 올해 KBS 연기대상은 ‘두 아버지’ 배우 김영철(64)과 천호진(57)에게 돌아갔다.

‘아버지가 이상해’의 김영철과 ‘황금빛 내 인생’의 천호진은 31일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열린 ‘2017 KBS 연기대상’에서 다양한 젊은 후보들을 누르고 대상을 차지했다.

김영철은 2000년 ‘태조 왕건’으로 KBS 연기대상을 받은 이후 17년 만에 두 번째, 천호진은 생애 첫 대상이다.

두 사람은 KBS 주말극에서 이 시대의 아버지상을 각기 다른 개성으로 절절하게 그려내면서 많은 시청자의 심금을 울려 올해 유력한 대상 후보로 꼽혔다.

김영철은 “17년 전 궁예로 사랑받은 기억이 생생한데 또 이렇게 큰 영광을 받았다”며 “‘아버지가 이상해’ 같이 좋은 작품을 만난 덕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극 중 아내였던 김해숙 씨, 두 아들 (민)진웅이와 (이)준이, 세 딸 (이)유리, (정)소민이, (류)화영이에게 고맙다”고 인사했다.

천호진은 “이 상을 세상 모든 부모님께 드리겠다. 저도 어느 부모의 아들이다. 아버지께서 몸이 좀 안 좋으신데 빨리 완쾌하셨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또 “진심으로 이 상을 주고 싶은 사람은 아내”라며 “연애할 때 한 약속을 지키는 데 34년이 걸렸다. 당신만 허락하면 다음 생애 또 당신하고 살아보고 싶다”고 말했다.

최우수상은 ‘김과장’의 남궁민과 ‘아버지가 이상해’의 이유리, ‘마녀의 법정’의 정려원이 차지했다.

한편 배우 김상중(52)은 올해 MBC 연기대상을 차지했다.

김상중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암동 MBC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2017 MBC 연기대상’에서 ‘역적 : 백성을 훔친 도적’으로 최민수, 장혁, 하지원, 유승호 등을 누르고 대상을 거머쥐었다.

‘역적’에서 아모개 역을 맡아 중반까지 극을 이끌며 울림을 준 김상중은 연기 인생 27년 만에 처음 지상파 연기대상의 주인공이 됐다.

김상중은 수상 소감에서 “저 지금 ‘상중’(賞中, 상 받는 중)이다”라고 ‘아재 개그’로 입을 연 뒤 “역적’ 이야기를 하려면 정치성 발언을 안 할 수가 없지만 오늘은 생략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적’에서 드라마 단역배우 최초로 엔딩을 장식했던 인물이자 대상 시상자로 나선 26년 차 무명배우 최교식을 가리키며 “백성의 아픔을 절절하게 연기하신 최교식 님의 모습이 드라마의 주제였다. 박수 부탁한다”고 공을 돌렸다.

김상중은 또 “다시 만난 좋은 친구 MBC가 되살아나길, 그 중심에 최승호 새 사장이 함께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올해 파업을 겪은 MBC는 지난해와 달리 시청자 투표가 아닌 PD들의 선택으로 대상을 선정했다. 또 MBC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오상진이 퇴사 후 처음 MBC에서 진행을 맡아 눈길을 끌었으나, 함께한 배우 김성령과의 호흡을 두고 시청자 평이 다소 엇갈렸다.

김상중이 대상을 가져간 가운데 ‘역적’은 다른 분야에서도 트로피를 싹쓸이하며 이날 행사의 주인공이 됐다.

최우수연기상은 ‘돈꽃’의 장혁과 이미숙(주말극), ‘군주’의 유승호와 ‘병원선’의 하지원(미니시리즈), ‘돌아온 복단지’의 고세원과 ‘행복을 주는 사람’의 김미경(연속극), ‘역적’·‘20세기 소년소녀’의 김지석과 ‘투깝스’의 조정석, ‘역적’의 이하늬(월화극)에게 돌아갔다.

/연합뉴스

‘집사부일체’ 쾌조 스타트

이승기 전역 후 첫 예능 복귀작 10.4%
1박 2일 시청률 11.1% 동시간대 1위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역 후 처음 선택한 예능에 시청자의 눈이 쏠렸다.

1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25분 첫 방송을 한 SBS TV 예능 ‘동거동락 인생과외-집사부일체〈사진〉’(이하 집사부일체)의 시청률은 6.5%-10.4%를 기록했다.

첫회에서는 이승기의 일상부터 이승기가 다른 멤버들을 만나는 모습, 그리고 괴짜 사부를 만나러 가는 모습까지 이승기에게 집중된 이야기가 담겼다. 특히 드디어 예능에서 ‘막내’를 탈출한 이승기와 ‘새 막내’ 육성재의 조합이 시청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집사부일체’보다 먼저 방송한 ‘런닝맨’은 4.2%-6.8%의 시청률을 보였으며, KBS 2TV ‘해피선데이’의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6.3%, ‘1박2일’은 11.1%로 각각 집계됐다. ‘1박2일’은 10주년 특집을 방송, 배우 조인성이 게스트로 출연해 화제가 됐다.

MBC TV ‘미스터리 음악쇼-복면가왕’은 7.3%-10.4%, ‘오지의 마법사’는 5.3%로 집계됐다.

한편, 2017년의 마지막 날 3사가 개최한 시상식 중 가장 재미를 본 것은 KBS였다.

KBS 2TV는 전날 오후 9시 20분부터 거의 5시간 동안 ‘KBS 연기대상’을 방송했으며 시청률은 1부 11.8%, 2부 11.9%를 기록했다. 올해 KBS 드라마가 풍작을 이뤘던 만큼 대상의 주인공을 향한 시청자의 궁금증도 커졌다.

MBC TV ‘가요대제전’은 6.4%, 7.1%, SBS TV ‘연기대상’은 8.3%, 8.8%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 12월 30일 방송한 ‘MBC 연기대상’은 8.8%, 7.3%, ‘SBS 연예대상’은 13.1%, 13.8%, 29일 방송한 ‘KBS 가요대축제’는 6.6%, 6.2%, ‘MBC 방송연예대상’은 9.9%, 12.1%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5 걸어서 세계 속으로 (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5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역류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다큐멘터리 3일 스페셜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해피 시스터즈
9	30 KBS 뉴스	00 꽃피어라 달순아 40 여유 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저글러스(재)	50 투깝스(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생로병사의 비밀(재) 50 UHD 한식의 마음	50 생생정보 스페셜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30 영상앨범 산 (재)		00 12 MBC 뉴스 20 TV속의 TV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톡톡 보험설계 (재)
1	00 KBS네트워크특선 뮤직토크쇼 가요1번지(재) 50 2017 KBS 영상실록〈국제편〉	10 특선다큐 〈영국의료제도, NHS의 위기〉	20 헬로키즈 자연교실	55 닥터 365
2	40 특집다큐 (재) 도심화재, 우리는 안전합니까?	00 생활의 발견 (재) 5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15 지오메카 45 PD수첩(재)	00 뉴스브리핑
3	30 행복한 지도 〈하동〉(재)	20 TV 유치원 50 여유만만(재)	40 헬로키즈 놀라운 자연 이야기 2	
4	00 4시 뉴스집중		10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	00 세상에서 가장 험한 등굣길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10 공감다큐, 사람 30 팔도밥상 스페셜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영상앨범 산(재) 30 제보자들(재)	00 5 MBC 뉴스 15 김경식의 영화 대 영화 30 전생에 웬수들(재)	00 SBS 오뉴스 45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40 팔도밥상 스페셜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영재발굴단
7	00 KBS 뉴스 7 35 UHD 특집다큐 화산섬 오름꽃	50 내 남자의 비밀	15 전생에 웬수들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05 생방송 TV블로그 꼼지락
8	25 미워도 사랑해	30 글로벌24 55 저글러스(재)	55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9	00 KBS 뉴스 9 40 신년특집토론 2018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해			
10		00 저글러스	00 투깝스	00 의문의 일승
11	40 KBS 뉴스 50 세계건강기행	10 특선영화 〈형〉	10 신년특선영화 〈라라랜드〉	10 불타는 청춘 1~2부
12	10 해외걸작드라마 닥터 포스터 시즌2			30 나이트 라인

EBS 1

05:00 왕초보 영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히말라야 새해맞이 -네팔 시바라트리〉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07:30 로이와 함께 하는 소방안전 이야기
07:45 출동! 슈퍼윙스
08:00 딩동댕 유치원1~2
08:30 플라워링 하트
08:45 방귀대장 뿡뿡이
09:00 몬카트
09:15 소피 루비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쥬
09:40 장수의 비밀(재)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된장과 우거지 된장찌개〉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미스터리 휴먼 다큐
12:40 세상의 모든 법칙(재)
12:45 메디컬 다큐-7요일
13:40 성난 물고기(재)
14:30 정글에서 살아남기
-화산섬의 비밀
15:00 우주탐험가 젯
15:15 꼬마기사 마이크
15:30 오드봇, 이상한 아이들
15:45 부릉!부릉! 브루미즈
16:00 엄마 까투리
16:15 두다다쿵
16:30 방귀대장 뿡뿡이(재)
16:45 딩동댕 유치원1~2(재)
17:15 로이와 함께 하는 소방안전 이야기
17:30 호기심 소녀 도트
17:45 띠띠뽀 띠띠뽀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1~4
19:00 몬카트
19:15 정글에서 살아남기
-화산섬의 비밀
19:30 EBS뉴스
19:50 극한직업
20:40 다큐오늘
20:50 세계테마기행
〈소수민족의 고향 라오스 2부 카무족의 행복 동화〉
21:30 한국기행
〈찬바람 불면 네가 올까 2부 어머니의 겨울 호수〉
21:50 EBS 다큐프라임 〈번 아웃 키즈〉
22:45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23:35 메디컬 다큐 - 7요일
24:25 세상의 모든 법칙
24:30 한국영화특선 〈설국열차〉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2일(음 11월 16일 甲午)

子 48년생 발전으로 이끄는 새로운 기운이 보인다. 60년생 주체에 따라서 천양지차가 될 수도 있으니 객관적일 필요가 있느니라. 72년생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가 보인다. 84년생 소득은 있지만 알찬 결과물은 아니다. 행운의 숫자 : 33, 14

丑 49년생 호사다마요, 새옹지마로다. 61년생 상투적인 일상에서 탈바꿈할 수 있는 파격이 필요하다. 73년생 극히 사소한 것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 85년생 건전하여 손해는 없을 것이니 적극적으로 가담하여도 무방하다. 행운의 숫자 : 15, 32

寅 50년생 높이면 낮아지고 낮추면 높아지는 법이다. 62년생 방심한다면 공든 탑이 무너질까 두렵다. 74년생 운수가 대통하니 재물을 얻는 길함이 있도다. 86년생 재물운의 징조가 확실하므로 실행에 옮긴다면 돈이 들어오리라. 행운의 숫자 : 01, 16

卯 51년생 어느 것에도 치우치지 말고 중용의 도를 지키자. 63년생 근소한 차이로 승부가 날 수도 있는 국세이다. 75년생 새로운 것을 접하더라도 초심을 잃지 말라. 87년생 위험 신호를 무시하다가는 공든 탑이 무너진다. 행운의 숫자 : 24, 07

辰 52년생 돌발 사태에 만전의 대비를 해야 할 때다. 64년생 막연한 풍문에는 귀 기울일 필요 없다. 76년생 뜻밖의 협조가 있으나 효과는 미미하니 큰 기대는 하지 말라. 88년생 신속하게 처리하면 상당한 재물을 얻을 수도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31, 25

巳 53년생 불편한 점을 확실히 개선하지 않으면 많은 손재가 따른다. 65년생 시기상조이기는 하지만 괜찮다. 77년생 겸손함과 검소함 속에서 복이 피어나리라. 89년생 당해 문제가 원활치 못하니 불편함을 느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8, 34

午 42년생 친분을 가장하여 사익을 도모하려는 이가 보인다. 54년생 희망을 잃지 말자. 66년생 다양하게 고찰해 보라. 78년생 지식보다 참다운 지혜가 요청되는 때이다. 90년생 하나의 이권 아래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이 모여들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8, 00

未 43년생 초심을 잃지 말라. 55년생 전반적인 관리에 세심한 공을 들여야 할 때다. 67년생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다. 79년생 부단한 노력이 확실한 미래를 담보하는 지경에 이른다. 91년생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0, 49

申 44년생 우려에 대한 확인만 잘 해도 사고를 예방하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다고 본다. 56년생 치밀한 분석력이 절실히 요청된다. 68년생 이익에 집착한다면 오히려 손해를 보리라. 80년생 외출을 삼간다면 면액 하겠다. 행운의 숫자 : 04, 19

酉 45년생 방금 지나 간 흔적을 잘 살펴보면 결정적인 힌트를 얻게 되리라. 57년생 능력에 맞는 계책과 방안이 필요하다. 69년생 이탈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안전하다. 81년생 생산적인 관계를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28, 56

戌 46년생 특별히 신경 쓰지 않으면 무너져 내릴 것이다. 58년생 밖으로 나가기는 쉬우나 돌아오는 데는 더딜 것이다. 70년생 실효적인 거점을 확보하게 되는 쾌거가 있다. 82년생 매우 어색한 처지에 놓이게 될 수도 있겠다. 행운의 숫자 : 47, 12

亥 47년생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흥왕의 기운을 함께 나눌 것이다. 59년생 집착을 버리고 진용을 정비하는 것이 이익이다. 71년생 매끄럽지 못 하다면 반드시 후유증을 남길 것이다. 83년생 탈출구를 모색하더라도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3, 29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